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3 | 2018년 9월호

## 자유학기제 현장들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 경남 한산중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작은 섬에 산다고 꿈까지 작은가요?



한산중 학생들이 만든 마녀 빗자루 모양의 쿠키. 직접 만든 이정표를 교내 화단에 심고 있는 한산중 학생들.  
김미화 교사 제공

경남 한산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남 통영시에 딸린 작은 섬 한산도에서 세계 각국의 특성과 문화를 공부하며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한다.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는 섬에 사는 학생들이 지역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기획했다.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은 매주 화요일 5교시에 총 17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한산도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섬에 살지만’ 파트(4차시)와 세계 여러 나라를 공부하는 ‘Into the World’ 파트(13차시)로 나뉘어 진행됐다.

### 작은 섬에 살지만...

중학교 영어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교사는 우리 문화를 먼저 배우고 외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더욱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 학생들은 삶의 터전인 한산도의 특성과 장점을 조사하고, 이를 영어로 알리는 활동부터 시작했다.

1차시는 존경하는 사람을 한산도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쓰는 시간. 수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한산도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CEO가 꿈인 한 학생은 빌게이츠를 초대하고 싶어하면서도 “자랑거리가 없는 한산도에 어떻게 부르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교사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사랑스런 여러분도, 섬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학교 뒷산도, 맛있는 미역도 모두 한산도의 자랑이다. 충분히 초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2차시에는 미국식 주소 표기법에 따라 학교 주소를 써보고, 3차시에는 한산도의 유명한 음식 조리법을 영어로 작성했다. 국제사회에 한산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셈이다.

이렇게 1~3차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4차시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한산도 명예 홍보대사가 되어본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산도의 ‘명물’ 하나를 뽑아 홍보하는 대본을 영어로 쓰고, 이를 리포터처럼 자연스럽게 읽으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김 교사는 “CNN 뉴스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말하기 연습을 했다”면서 “발표 경험은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더 넓은 세계로!

1~4차시에 우리 고장을 공부했다면 5~17차시에는 세계 각국을 공부하며 시야를 넓히는 시간. 출발은 영어 노트 표지 만들기다. 학생들은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각 ‘꿈’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김 교사는 이미지 파일들을 취합해 노트를 제작 주문했다. 한산도에는 문방구가 없어 노트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생들의 학용품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색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셈. 김 교사는 아직 꿈이 없어 이미지 만들기를 주저하는 학생에게도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용기를 줬다.

6차시부터는 외국 문화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6차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200개 나라이름을 검색해보고, 찾은 나라이름으로 끝말잇기를 하는 시간. 제일 처음 France(프랑스)를 적었다면 다음으로 Ethiopia(에티오피아)를, 이어 Argentina(아르헨티나)를 적는 식이다. 학생들은 세상에 아주 많은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7~8차시에는 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한산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든다. 화살표 모양 종이에 ‘Beijing(베이징), North(북쪽), 1100km’라고 쓴 뒤, 이를 긴 각목에 붙이는 것. 직접 만든 이정표는 교내 화단에 심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9~10차시에는 수입과자를 나눠먹으며 과자 원산지의 문화를 알아보고, 11차시에는 가보고 싶은 나라를 좀 더 자유롭게 조사한다. 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이 있다면 평소 학생의 관심사에 맞춰 조사방향을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너의 꿈은 요리사니까 프랑스의 특별한 음식들을 찾아보자”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14~17차시는 외국의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 핼러윈 시즌에는 마녀 빗자루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 보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I Wish’ 표현을 이용해 소망카드를 써서 작은 트리에 매달았다. 김 교사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과 달리 외국축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섬마을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수업”이라고 말했다.

### 배움을 나누며 한 뼘 더 성장

12~13차시에는 한산중만의 특성을 살린 활동이 이뤄졌다. 한산중은 유치원·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돼서 모든 학생들이 통학버스, 급식소, 운동장 등을 공유한다. 김 교사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한산중 학생들이 영어 동화책을 직접 번역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필이면 동화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섬마을 학생들은 부모님이 뱃일을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조부모 손에서 크는 경우가 많아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어본 경험이 적어서다.

학생들은 영어 동화책 ‘작은 빨강 닭’을 번역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직접 낭독도 해줬다. 왼쪽 페이지엔 영어 원문, 오른쪽 페이지엔 번역문을 배치해 제본하는 역할은 교사가 맡았고, 만든 책을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학생들이 직접 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큰 꿈을 품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 김미화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 “베이징까지 별로 안 멀군, 같이 걸어가볼래?”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산도 방문을 촉구하는 초대장 쓰기 △수입과자 원산지의 문화 조사하기 △헬러윈과 크리스마스 체험하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는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키우고, 그때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한산중 학생들의 소망을 담은 카드와 트리.

한산중 학생들이 직접 번역한 동화책. 김미화 교사 제공

###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한산중은 전교생이 11명인 ‘초미니’ 중학교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한산중 학생들에게 ‘딱’ 맞는 수업을 기획하고 싶었다.

수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한산중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했다. 한산중 학생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밝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주변 어른들의 직업이 제한적이라 장래희망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그런 학생들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들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 바람을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담은 것이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컸다. ‘영어를 좀 더 많이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닐까?’ ‘단어나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하지만 교사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반이라고 믿는다. “우측 두 번째 차선으로 주행하세요”처럼 세세한 안내를 해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대신 부족한 학습량을 집에서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과서에 부록으로 붙어있는 CD를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라고 알려주거나, 수업에서 새로 배운 단어는 노트에 세 번씩 써보라고 독려하는 식이다.

### 수업의 효과는?

영어를 어려운 과목, 그래서 두려운 과목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 영어는 쓰임새가 많은 좋은 도구다.

한산중 학생들에게는 “한산도엔 육지로 통하는 다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주 편리할 것이다. 영어는 그렇게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해주니 쉽게 이해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 이정표 만들기 활동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베이징까지 별로 안 멀군. 같이 걸어 가볼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의 포부가 커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교사로서 무척 뿌듯한 순간이었다.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

## 각 학교·학생의 특성 반영해야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교사가 따뜻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면 학생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단, 수업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욕심은 조금 덜어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를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을 최소화하려면?

작문수업을 하다보면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제법 많다. 사전을 보면 하나의 한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1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아직 영어 실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여러 개의 단어 중 어떤 단어가 이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지 파악하고 선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번역기도 때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단,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꼭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의 손 안에 세상이 있다"고 말해주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지 조언해주고,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하면 도구 활용 능력과 정보탐색 역량도 자연스럽게 신장된다.

### 제언

이 수업을 다른 교사들에게 소개하면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수업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학생 수가 적어서 훨씬 원활하게 진행된 활동도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탄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도 훨씬 용이하다. 반면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되는 더 큰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일일이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을 다른 중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딱맞는, 훨씬 더 좋은 수업이 탄생하리라고 생각한다.